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서울대학교 장애아부 연합회 연구팀

학습 목표

대림 시기의 의미에 대해 이해한다.

활동을 통해 대림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다.

준비물

달력(2014년 11월·12월 부분), 대림환(혹은 대림환 이미지), 두꺼운 종이에 출력한 대림초 이미지, 양면 테이프(혹은 벨크로테이프), 스티로폼, 우드락, 대림초(네 가지 색), 나뭇잎 등 대림환 꾸미는 재료

(※대림초 이미지는 디다케 홈페이지 '<http://didache.eduseoul.or.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

사랑이신 주님, 오늘 저희 친구들과 대림 시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여 사랑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많은 은총 내려 주세요.

아멘

☞ **선생님들께**

시작 기도로 주요 기도를 소재로 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추천합니다. 말로 하는 기도보다 학생들이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주요 기도를 반복하는 효과도 있어 기도문 습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습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 **선생님들께**

본격적인 교리 시작 전, 학생들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합니다. 선생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질문하면 학생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혹시 학생들이 답을 모를 경우 바로 정답을 알려 주지 마시고 단서를 주어서 스스로 답을 찾아 볼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예를 들어 소리 내지 않고 입 모양으로 단서를 주거나 정답의 첫 글자만 알려 주는 방법, 관련 이미지를 보여 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교리 소개

친구들! ‘겨울’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학생 대답 듣기)

선생님은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이 생각나요. 으슬으슬 추워지는 걸 보니 이제 아기 예수님이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탄이라는 기쁜 날을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해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요. 바로 ‘대림 시기’라고 부르는 기간인데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럼 다 함께 대림 시기에 대해서 배워 볼까요?

전개

대림 시기는 무엇인가요?(학생 대답 듣기)

대림 시기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대림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 동안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4주간’이라는 말은 4번의 주일을 지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올해 대림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함께 달력을 보면서 알아맞혀 볼까요?

(달력의 2014년 11월과 12월 부분을 준비하여 학생들과 함께 봅니다. 적당한 크기의 달력이 없다면 전지에 그려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우선 예수 성탄 대축일부터 찾아보기로 해요. 올해 12월 25일은 12월 넷째 주 목요일이네요. 조금 전

에 대림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 함께 달력을 보며 12월 25일 전에 있는 4번의 주일을 찾아볼까요?(잠시 시간을 준 뒤) 4번의 주일 중 가장 처음에 있는 주일은 언제 인가요?(학생 대답 듣기)

가장 처음에 있는 주일은 11월 30일이지요. 올해는 11월 30일부터 대림 시기가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4주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요.

(미리 준비한 대림환 실물이나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보여 줍니다.)

친구들, 이것을 본 적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대림 시기에 볼 수 있는 대림환이라는 거예요. 대림환에 있는 네 개의 초는 대림 4주년을 의미해요. 대림 1주에 보라색 초에 불을 켜는 것을 시작으로 연보라색 초, 분홍색 초, 흰색 초 순서로 매주 한 개씩 밝혀 나간답니다. 초 색깔이 점점 하얗게 될수록 성탄절이 가까워 오는 것이지요. 빛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수록 이 세상은 점점 환해지는데, 우리는 밝아지는 대림초의 색깔을 보며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림환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이지요? 이것은 하느님께서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한 분이심을 뜻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경우 이 활동을 추가해 주세요.

디다케 홈페이지에서 대림초 이미지를 내려받아 두꺼운 종이에 출력합니다. 양면테이프나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출력한 대림초 이미지를 칠판 등에 붙였다 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 내어 직접 대림초 이미지를 순서대로 칠판 등에 붙여 볼 수 있게 유도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대림이 4주간이라는 것과 초의 색이 점점 밝아진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선생님들께**

교리 진행 시 말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흥미와 집중력을 잃기 쉽습니다. 칠판이나 벽에 그날 배울 교리 내용에 관한 이미지나 단어 카드를 붙여 아이들이 수업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업

선생님은 예수님이 무척이나 기다려지는데,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기다려지나요? (학생 대답 듣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오늘은 대림환 만들기를 해 볼 거예요.

■작업 방법

-학생들을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인원수에 따라 4배수의 숫자로 그룹의 수를 조정해도 됩니다.

- ① 스티로폼을 준비하여 원 모양으로 자릅니다.(네 개의 초와 각종 꾸미기 재료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크기로 자릅니다.)
- ② 원 모양의 스티로폼 밑에 우드락을 붙인 뒤 네 등분하여 그룹 당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 ③ 나뭇잎, 꽃 등 각종 재료를 이용해서 예쁘게 꾸미고, 초를 하나씩 놓습니다.
- ④ 각자 만든 조각을 모아 대림환을 완성합니다.



☞ 선생님들께

모든 학생들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추어 꾸미는 재료를 다양하게 준비합니다. 다만 든 대림환은 대림 시기 동안 교리실에 두어 아이들이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합니다.

마무리

우리가 나누어 꾸민 네 개의 조각이 모이니 예쁜 대림환이 완성되었어요. 한 사람이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자 숨씨를 발휘해 만드니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요? 어떤 그룹은 나뭇잎을 많이 사용했고, 어떤 그룹은 꽃과 색종이를 많이 사용했네요.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합쳐 놓아도 어색하지 않고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대림 시기를 보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자리에서 지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만은 모두 똑같이 갖고 있어야 한답니다.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앞으로 남은 대림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생활하며 함께 예수님을 기다려 보아요.

마침 기도

은총의 주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대림환을 만들며 대림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오늘 배운 내용을 항상 기억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많은 은총 내려 주세요. 아멘.